

# 조도신슈[정토진종]와 히라카타 지나이마치[절 경내 마을]



가와치 메이쇼 즈에[가와치 명소 그림책] 히라카타 만넨지 절

언덕 위의 만넨지 절과 강변의 히라카타 슈쿠[역참]가 그려져 있으나, 혼진[숙소], 히가시고보, 니시고보의 위치 관계가 실제와 다르다.

히라카타는 조도신슈[정토진종]와 관련이 깊은 곳입니다. 히라카타와 조도신슈의 만남은 센고쿠 시대[전국시대]의 준코지 절 건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에이로쿠 2년(1559)에 렌뇨의 27번째 자녀인 지츠주가 이곳에 입사하여 잇케슈[일가중](혼간지 절 종주의 일족)의 사찰로 변창하게 됩니다. 지츠주는 “시신키[사심기]”라는 일기를 남겼으며, 히라카타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. 이 일기에 의하면 준코지 절을 중심으로 구라노타니, 가미노초, 시모노초 등의 마치바[저잣거리]가 형성되어, 기름 장수, 소금 장수, 된장 장수 등의 상호를 가진 상인 등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처럼 조도신슈를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을 지나이마치[절 경내 마을]라고 합니다.

히라카타 지나이마치는 현재의 히라카타 가미노초를 중심으로 대지 위에 있었습니다. 그러나 혼간지 절 세력의 약화와 함께 준코지 절은 폐사되고 지나이마치는 쇠퇴합니다. 에도 시대가 되자 요도가와 강을 따라 히라카타 슈쿠[역참]가 형성되어 대지 위에 있던 도시 기능도 역참으로 옮겨졌다고 짐작됩니다. 이후 혼간지 절은 동서로 분열되었고 덴나 2년(1682)에 히가시[동] 혼간지는 히라카타에 재건된 사원에 간쇼보 절이라는 이름을 부여했으며, 니시[서] 혼간지도 조넨지 절을 혼지켄타이쇼[본산 겸대소](본산 직할의 사찰)로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. 이 지역 사람들은 간쇼보 절을 히가시고보[동쪽 별원], 조넨지 절을 니시고보[서쪽 별원]라고 불렀습니다.

